

2018년 11월 19일,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 이현정 조사.

이옥선(여, 1938년생, 제주시 도두1동)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설문대할망은 키가 매우 컸기 때문에 옷을 지어 입는 데도 많은 양의 명주가 필요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민들에게 자신의 옷을 짓는데 사용할 명주를 구해오면 추자도까지 다리를 놔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명주를 구할 길이 없어 제주도에서 추자도까지 다리를 잇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조사자] 설문대할망 얘기 기억나는 거 잊이믄 뜬문뜨문이라도 해줍서. 어떤 할망이엔 헍디가?

[제보자] 막 커노난 그 할망이 멩지 멧 필을 헤 주민 여기서 추자도꺼지 드리. 자기가 드리 놔 주肯 헛주기. 경헷인디 거 설문대할망 말은 잘 아는 사름 엇일 거여.

우리 할망 살아난 땐 잘 알아라마는. 우리 어머니 살 때는. 어똑 들은 말이주게.

그 설문대할망이 이 산신이주게. 여자 산신. 한라산이 산신할머니라. 산신님이 그 설문대할망이라. 우리 보통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허는디. 얼마나 키가 어마장장 허민 추자 다리 놔주肯 헌 할망이엔. 자기 옷 헤 입겐 멩주를 엄청 많이 거느렸겠지이.

“거만 헤 주면 내가 추자도꺼지 드리 놔 주켜.”

못 낮 주기. 누가 그 멩주를 누가 그거 다 감당행 해내냐. 신이난 곳은 말이주.

• 핵심어: 설문대할망, 멩주(명주), 추자도, 산신, 드리(다리), 한라산